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5월 20일(주일) 제1197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이재훈, 유기성 목사, 벤 토레이, 이지선 등 강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사랑의 힘'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저녁 7시 30분에는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이어진다. 회비는 2만원(사전등록 1만원)이다.

올해 마리아행전은 요일별 소주제가 있다. 27일 '믿음의 힘', 28일 '소망의 힘', 29일 '사랑의 힘'이다. 강사는 27일 이재훈 담임목사, 김영애 권사(〈갈대상자〉저자), 28

일 벤 토레이 신부(예수원), 김성근 목사(노원 한나라는 해교회), 29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지선 교수(한동대, 〈지선아 사랑해〉저자)다.

참가신청은 6월 20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오늘(20일) 서빙고와 양재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를 이용해도 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마감되고, 당일 등록은 받지 않는다. 회비는 4만원(사전등록 2만원)이다.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흰색 상의와 검

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한편 캠퍼스별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월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에서 열리고, '주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은 서빙고, 양재, 남양주, 부천, 수원에서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7, 3201

양재 02-570-727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차세대 어드벤처 '바울, Jump to the world'

국내 22일~6월 9일, 해외 31일~6월 2일



사진은 지난해 차세대 여름캠프.

2018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어드벤처가 '바울, Jump to the world'를 주제로 시작된다.

5월 22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5월 29일(화) 양재, 6월 9일(토) 수원, 부천, 대전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주일학교 교사나 여름캠프, 국내외 아웃리치(여름성경학교, 위십댄스)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등록비를 입금한 다음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당일등록은 2만원이다.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교사강습회 어드벤처가 실시된다. 5월 31일(목)부터 6월 2일(토)까지 상해 온누리교회, 6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대련 온누리교회, 6월 3일(일)부터 5일(화)까지 청도 온누리교회, 9월 6

일(목)부터 9일(일)까지 베트남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주최하는 교사강습회 어드벤처는 교사들에게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차세대들에게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2-3215-3521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3-60104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알려 드립니다

세례교인증명서, 등록교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방법: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배너 클릭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선망하는 자녀의 직업 1순위가 의사다. 그런 의사를 4대째 배출한 집안이 있다. 민병진 원장(CCF 멤버, 치과의사)의 집안이다. 할아버지도 의사(외과)였고, 아버지도 의사(이비인후과)였고, 본인도 의사고, 딸(사회적기업 ‘위드마이치약’ 민승기 대표, 치과의사)도 의사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의사를 배출한 남부럽지 않은 집안이다. 그런데 민병진 원장은 치과의사보다 자녀교육 전문가로 더 유명하다. 민 원장은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하면서 자녀교육 및 진로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자녀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강의도 하고, 책을 내기도 했다. 아니, 잘 나가는 치과의사가 왜 자녀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일까? 돈과 명예, 세속적 성공에 올인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잘 나가는 치과의사가 자녀교육에 빠진 이유

대치동 엄마들의 교육멘토 ‘민병진 원장’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행복한 성공을 가르치는 민병진 원장.

민병진 원장이 제언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할 행복한 성공을 위한 조건

- ◆ 자녀의 재능을 찾는다
- ◆ 재능을 통한 부모와 자녀 인생의 사명을 찾는다
- ◆ 사명 감당을 위한 성령의 9가지 성품을 만든다
- ◆ 성품을 꾸준히 훈련해서 실제로 살아간다
- ◆ 영어성경을 매일 한 줄이라도 부모가 함께 읽고 소통한다
- ◆ 매순간 만나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한다

민병진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에 도착하자마자 2시간 넘도록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녀교육 세미나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만큼 민 원장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의 본업은 교정전문 치과의사다. 압구정동에서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이력이 ‘자녀교육 상담가’이다. 이 일 또한 30년 넘게 했다.

민병진 원장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정과를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대학원과 보스턴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민 원장의 가족친지들도 모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국 유명대학 출신들이다. 학벌로만 따지면 아마 민 원장 집안이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속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치맛바람 휘두르는 대치동 엄마들이 민 원장을 찾아와 자녀교육에 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세상적 성공 VS 행복한 성공

“치아교정을 하는 환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예요. 치아교정은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학생 환자들을 자주 접하면서 어머니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제게 자녀의 진로 상담을 해오셨어요. 주로 대학진학이나 공부 방법, 미국 유학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진로상담이 입소문이 났다. 자녀교육 관련 책도 내고, 단체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다. 2016년에는 지상파 방송 ‘영재발

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세를 치렀다.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은사를 바탕으로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 때는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010년경이었다. 인생을 돌아켜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대치동 엄마들이 민 원장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안 봐도 뻔했다. 어떻게 하면 민 원장 집안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명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 그런데 민 원장은 자신의 세속적 성공과 교만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동안 했던 상담들은 저의 세속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한 처방들이었어요.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래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세속적 성공을 이루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좋은 대학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민 원장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성공’을 알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상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엄마들에게 현실적인 교육 방법과 더불어 성경적 교육과 행복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부모의 선택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

민 원장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을까? 그는 딸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 성적표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그런 자신이야말로 정말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다.

“딸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봐서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고요. 정말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고,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딸과는 소통이 부족했어요.”

민 원장은 딸을 치과의사로 키운 공은 아내에게 있다고 했다.

“저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컸어요. 아내가 딸을 데리고 어릴 때부터 아웃리치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필리핀으로 아웃리치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자기네 마을에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딸이 그 말을 듣고 원래 꿈이었던 디자이너를 포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치과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대요.”

민 원장은 자신의 딸이 치과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딸 민승기 대표는 사회적 기업 ‘위드마이치약’의 대표이다.

“딸이 만든 치약은 친환경이에요. 동물실험도 하지 않았고, 포장재도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요. 치약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제 딸이 대를 이어서 의사가 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

는 것이 더 기뻐하고 기쁩니다.”

그래도 의문이 들었다. 민 원장이야말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표본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꼭 한번쯤 소원해 볼 법한 부러운 환경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최고의 학벌, 돈과 명예를 모두 가져봤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요.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이 돈이 많은 슈바이처가 되면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과 권력은 어둠의 속성이예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결코 슈바이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영적 전쟁입니다.”

민 원장은 학부모와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했다. 학부모들과 차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간곡하게 호소했다.

“지금 우리는 영적전쟁의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어머니들조차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행복한 성공을 이루기 원한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적은 돈을 벌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민 원장의 바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녀로 키우는 비법은 부모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의 선택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교회 앞에 붙는 이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 이름으로 불리는지가 교회 자체보다 중요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큰일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도 교회 이름을 새롭게 짓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이 싫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의 일원이었는지, 어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였는지, 우리가 진정 교회였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부를 때도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야 할까요? ‘온누리’입니까, ‘교회’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을 말할 때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이름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교회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고,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소중한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한 첫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세 번 언급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세 번 언급하심으로 교회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앞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에클레시아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열쇠 가진 공동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땅에 속해 있지

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세상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18~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는 베드로의 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체적인 제도나 조직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민족, 나라, 언어, 교파에 따라 제한받은 제도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과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시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가나 평가에 연연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평가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과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했던 역사 속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고 듣고 함께 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의 대답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바로 사 용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날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질문 앞에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 질문 앞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 열쇠로 하나님 나라를 여는지 혹은 열지 못하는지가 결정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16절).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제자들의 실력으로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17절).

100점 만점 대답인데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력도 아니고, 역사에 축적된 지식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우리의 지적인 판단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 추론, 실험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기적처럼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

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곰곰이 생각해볼수록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둘째,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고백의 모범을 보인 직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23절).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평가와 정반대입니다. 조금 전에는 “너는 베드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는 사탄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반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너는 복이 있다”라고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너는 내 뒤로 물러가야 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신앙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왜 사탄과 걸림돌이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놀라운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는 걸림돌, 사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발 내 뒤로 물러가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추락할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가정의 위기

1. 소유권 다툼 ‘고부·장서갈등’
2. 사랑과 전쟁 ‘부부갈등’
3. 가정의 탄생 막는 ‘비혼과 만혼’

더 사랑하는 부부 만드는 세 가지 묘약

배우자 위한 기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꾸준한 데이트와 스킨십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부부지간은 꼴도 보기 싫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다가도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부부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는 말이 생긴 것도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절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는 부부싸움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소한 의견충돌에서 시작한 부부싸움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고, 부부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부부싸움 한번 안 해 본 부부가 있을까? 어제 결혼한 부부도 싸운다. 부부지간에 사소한 의견충돌이나 감정이 상해본 일이 없다고 말하는 부부가 오히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부싸움은 나쁜 게 아니다. 부부가 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부부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적절하고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를 자처하게 된다.

지난해 아내와 말다툼을 한 남편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집에 불을 낸 사건도 있었고,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아내가 화감에 흥기를 휘두른 일도 있었다. 그 남편은 끝내 사망했다. 사소한 부부간의 갈등이 이토록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사랑과 이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은 딱 3년 동안만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 평생 함께 살아갈 부부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사랑의 유통기한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묘약이 있다. 첫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 둘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기. 셋째, 꾸준한 데이트하고 스킨십 즐기기가 그것이다.

배우자 위한 기도의 핵심 ‘축복’

농담으로라도 “신혼이니가 그렇지”, “정으로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들은 마치 신혼 때만 행복하고, 부부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혼이 아니어도, 정이 아니라 평생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적절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하여

함께 영화보기 부부가 함께 보면 좋은 영화가 있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호프 스프링스’가 그것이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89세 소녀감성 강계열 할머니와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다큐영화다. 매일 신혼같이 사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호프 스프링스’는 반드시 깨질 것 같은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다. 각방을 쓰던 30년차 부부 케이와 아놀드가 회복되는 과정이 담겼다.

책 교환하며 읽기 부부가 책을 교환하며 읽으면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 평소 대화시간이 부족하거나 대화소재가 없는 부부에게 특히 유용하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가정, 오리진의 회복> 등 기독교 서적도 좋고, 자녀교육, 소설, 에세이, 취미 등 일반적인 서적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부부교육 참석하기 교회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부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서는 ‘젊은부부학교’, ‘아름다운동행’, ‘이혼자행복학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헬로맘’ 등 성경적 가정을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예비학교’, 우리 가족, 자화상 찾기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 예를 들어 “우리 남편 골프 좀 그만 치게 해주세요”, “아내의 이해심이 늘어나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도는 부부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게 좋다.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부터 변화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축복이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변화되고자 무릎 꿇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이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절대 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

부부싸움의 밑바탕에는 주도권 싸움이 깔려 있다. 그 쓸모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 부부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영향력이 강한 쪽을 따라 남편 중심 혹은 아내 중심의 가정이 되기 때문이다. 부부의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반대편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긴 쪽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배우자의 약점 찾기에 몰입한다.

중요한 사실은 부부 어느 쪽도 주도권을 쥌 수 없다. 왜냐하면 부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쥌 배우자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그렇다면 부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가정에

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가정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평등한 관계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확인 받기

“장모님 딸이랑 어떻게 뽀뽀를 합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신혼 때는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던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 데이트와 스킨십에 소홀해지기 쉽다. 같이 영화도 보고, 산책을 즐기던 부부들이 자녀 키우고,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느라 돌만 보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스킨십과 데이트를 소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기 싫어지고 불편해지는 공통점이 있다. 부부의 데이트와 스킨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확인받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기도 하다. 실제로 데이트와 스킨십을 꾸준히 즐기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월등하게 높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회사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배우자와 데이트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짬을 내서 맛있는 식당에도 가고, 퇴근길에 꽃 한 송이 사서 배우자에게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일과 육아 때문에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데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데이트는 ‘버킷리스트 교환하기’와 ‘커플달걀 보관하기’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리스트다. 부부 버킷리스트 교환하기는 각각 버킷리스트 20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을 교환하면서 작성한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앞만 보고 달리던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해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커플달걀 보관하기’는 부부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민 달걀을 서로에게 선물하고 그 달걀을 일정 기간 동안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다.



전문가 기고

부부싸움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김성묵 장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

어느 군부대 사단장이 부대 특강을 요청하며 들려준 이야기이다. 얼마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 “여기가 군대야? 내가 당신 쫄병이야? 당신이 군대에서나 사단장이지, 집에서도 사단장인줄 알아? 당신 제대한 다음에 두고 봐!”

그렇게 말하곤 방문을 짱 닫고 나가버리더라.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특강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부부의 삶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다. 부부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부부, 갈등을 회피하며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부부이다. 결국 모든 부부에게 갈등은 있다는 의미이다. 부부는 갈등을 극복하면서 성숙해지고 행복해진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감정에 푹 빠져서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상의 지뢰밭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 지뢰밭에는 양말, 치약, 수건, 신문 등 숱한 작은 지뢰들이 깔려있다. 그 지뢰가 터지면 감정이 상하고,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하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연애할 땐 관계와 대화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던 것도 점점 수용영역이 좁아진다.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전에는 치약 짜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부부가 많이 다투기도 했다. 끝부분부터 짜는 사람들은 중간을 푹 눌러서 짜는 배우자에게 “왜 치약을 그렇게 짜느냐?”며 힐난한다. 치약을 중간부터 눌러 짜는 사람은 “뭐가 어때서 그래?”라며 짜증을 내거나 심하게는 치약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

양말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아내 앞에서 “쓸데없이 왜 이런 걸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하며 양말을 걷어 찬 적도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왜 나를 차는 건데?”라고 따졌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학교 선생이었던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라고 하면 나는 “내가 당신 학생이야?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라고 쏘아붙였다. 계속되는 아내의 잔소리에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아내는 따라 들어와 “내 말 틀린 것 있으면 말해 봐요!”라며 나를 다그치기도 했다. 그때 나는 “당신 말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라며 입을 다물었다. 하루는 아내가 “당신 엄마하고 나

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거야?”라고 물었다. 나는 “골치 아파. 그냥 다 같이 죽고 말자”라고 했고, 그 이후 한참 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는 엄동설한보다 혹독한 냉기가 돌았다. 계속되는 부부 싸움에 나는 ‘아내 잘못 만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다행히 주님을 만나고, 하용조 목사님의 권유로 가정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양말을 걷어챘을 때 왜 아내가 ‘나를 차냐’고 했는지, 왜 선생님처럼 나를 가르치려고 했는지, 왜 누구 먼저 구할 거냐고 물었는지, 그냥 다 같이 죽자는 나의 말에 왜 분노하고 좌절했는지 알게 되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부부생활의 행복은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가 보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사소한 일이거나 무거운 주제이거

이 아니다.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를 뿐이다. 단순히 양말과 치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 안에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애착욕구가 숨어있다. 말이 품고 있는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질문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욕구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전해야 한다. 그것을 ‘I Message’라고 한다. 정서적인 애착이 이루어지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둘째, 싸울 때 소리를 지르거나, 언어폭력 혹은 육체적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인격적 모독도 금물이다. 특히 상대방 가족, 생활습관을 들추지 않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다가오면 상대방은 피하게 되어 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한다. 한 사람이 피하면 상대방은 더 큰소리를 치고 다가오게 되어 있다. 피하지 말고 들어줘야 한다. 공감해 줘야 한다. 들어만 줘도 절반은 해결된다. 다가오는 사람을 몰두형, 피하는 사람을 회피형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내가 몰두형이고, 남편

사람 혹은 먼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밀면 된다. 나는 아버지학교에서 남편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친다.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화해의 손을 내미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먼저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아내와 자녀가 회복되고, 남편은 가정의 권위 있는 제사장으로 부활할 것이다.

다섯째, 말문이 막히거나 생각이 채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고 타임아웃(Time-out)을 선언하라. 이 시간은 일종의 정화와 같은 시간으로 매우 중요하다. 부부간에 타임아웃을 위한 신호를 정해놓는 것도 좋다. 갑자기 웃던가, 손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신호를 보내면 타임아웃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싸움을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한때 감정이 상한 사람이 웃으면 일단 타임아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따라 웃고 싸움을 정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대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타임아웃 이후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한 이후 마친다.

여섯째,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자기 전에 부부가 꼭 손을 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마 18:18-20).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고 관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화해의 지름길이며,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 또는 접착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싸움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부부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다. 갈등 없는 부부가 순기능적인 부부가 아니라 갈등을 다룰 줄 아는 부부가 순기능적인 부부이다. 갈등 있는 부부가 역기능적 부부가 아니라 갈등을 다룰 줄 모르는 부부, 갈등을 숨기고 사는 부부가 역기능적인 부부이다.

부부의 사랑은 연합이다. 부부싸움의 진실은 영적인 연합, 정서적 연합, 육체적 연합을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삶의 일부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이 훈련이듯 싸움도 훈련이 필요하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잠 24:3-5).

“
부부싸움은 영적, 정서적, 육체적 연합을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일어나는 삶의 일부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나 다툼의 끝에는 늘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다. 마음이 상하면 마음을 닫게 되고 상한 감정들이 억압된 채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무의식으로 들어간 상한 마음들은 마치 암세포처럼 번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라서 자아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킨다.

부부싸움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부부 치료사인 수잔 존슨은 부부갈등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녀)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애착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부부싸움을 통해 자신의 강한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알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듦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부부싸움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부부싸움 잘 하는 방법

첫째, 부부갈등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

이 회피형인 경우가 많다.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공감이다.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정서적 단절이 온다. 그 후유증은 오래 간다.

셋째,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하는 말은 물론 옳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도 옳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문제는 소통 방식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마 7:12)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계 방식이다. 또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접근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잠 15:1)고 했다. 대화에서는 내용보다 말투와 표정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말투와 표정을 바꿔야 한다.

넷째, 먼저 사과하면 진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부부싸움에는 한 사람만의 승자란 없다. 두 사람 다 이기던가, 두 사람 다 지는 게임이다. 성숙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부모님께 가장 큰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 142명 결신, 102명 세례 신청

이보다 더한 감동이 또 있을까? 눈물, 사랑, 섬김, 헌신, 기도 무엇 하나 감동 아닌 것이 없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지난 1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는 부모와 자녀 402명이 참석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지 않은 참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백혈병 투병 중인 아들이 부모를 초청하고, 올해 91세 된 아버지도 오셨다. 아버지를 두 번째 초청한 딸도 있었고, 저 멀리 부산에서 오신 할머니도 계셨다. 그들 모두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요, 천국잔치였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박현규 성도(SNS공동체)의 부모님(박노일 62세, 하옥자 61세)이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박현규 성도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자 알아서 종교 활동을 하자”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 아름다운 청년 박현규 성도에게 느닷없는 시련이 찾아왔다. 약 1년 6개월 전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제가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부모님께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병 중에도 부모님께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 힘든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아들을 보고 부모님의 마음이 흔들렸다.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때마침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교회에서 좋은 콘서트를 한다고 초청했다. 부모님은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승낙했다. 그렇게 항암치료 받느

라 머리카락이 다 빠져 모자와 마스크를 쓴 아들과 부모가 함께 교회에 왔다. 아들의 진심이 부모의 마음을 흔들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왜 우리 아들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임영빈 집사(송과공동체)는 올해 91세 되신 아버지와 어머니(83세)를 초청했다. 임 집사의 아버지 임달순 어르신은 이날 최고령 참가자였다. 임영빈 집사가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느덧 아버지 연세가 91세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정신은 맑으세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실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 집사는 교회에 가지는 초청에 흔쾌히 응하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 제 부모님께서 교회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예요. 아버지는 교회를 안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절에 다니셔서 교회에 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자녀들의 숙원 풀어주는 전도의 장(場)

특별한 사연이 있는 참가자들이 또 있다. 김성은 성도(성동광진공동체)는 아버지(김영훈 69세)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초청했다. 지난해 맞춤전도집회 행복콘서트에 참가하신 아버지께서 교회에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초청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또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다. 김성은 성도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씀드릴지를 고민하다가 맞춤전도집회 행복콘서트를 홍보하는 전화인터뷰 영상을 찍기로 했다.

“영상을 찍는데 조마조마했어요. 신기하게 아버지께서 못 이기는 척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내년에도 초대해주면 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손녀가 할머니를 초청한 참가자도 있었다. 이소정 성도(SNS공동체)는 부산에 계신 외할머니 박복남 어르신(85세)을 초청했다. 이소

정 성도가 이번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콘서트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외할머니께서 불심이 깊으셔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도 막막해하셨는데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고 이때다 싶었어요”

이소정 성도는 집회 일주일 전 부산에 직접 내려가 외할머니를 초청했다. 외할머니는 손녀의 초대를 받고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집회 하루 전날 외할머니와 이소정 성도의 엄마 이은수 성도(부산서면교회)가 함께 서울에 왔다. 특히 이은수 성도가 어머니께 난생 처음 쓴 편지를 읽어드리자 외할머니, 엄마, 손녀 삼대가 함께 흐느껴 울었다.

“부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제 하나님 믿을 거예요. 원래 오늘 허리 치료하러 병원 가는 날인데 여기 오느라 못갔어요. 그런데 아프던 허리가 오늘은 하나도 안 아프네요”

역시 부모초청 맞춤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자녀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전도의 장(場)이었다. 이날 맞춤전도집회에 참석한 부모 242명 중에서 142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고, 102명이 세례를 신청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최고의 효도

사랑하는 부모님, 아들 현규입니다. 제가 백혈병에 걸린 후부터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돈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부모님께 전달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정보다 사랑이 넘치고 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복드림콘서트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일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박현규 성도(SNS공동체)

가장 소원하는 한 가지

사랑하는 어머니, 4남매 카우노라 열손가락 지문이 다 닳도록 모진 세월을 이겨내셨지요. 그 은혜에 보답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결혼해서 3남매를 키워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둘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손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 이은수 성도(부산서면교회)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8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다고 믿는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마음의 준비가 있건 없건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다.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다. 나그네에게는 모든 순간순간이 귀하고 귀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전도자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있었다. 나이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고이 품어 주실 것이다.

성경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4:13)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영혼은 갈 곳이 정해져 있다. 바로 천군천사의 호위를 받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다. 성도의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의 장막에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가운데 생명수 샘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움츠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 삶의 자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공급자 이시다. 모든 것,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신앙으로 살 수 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자. 생의 황혼녘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면 만 개의 입이 있다 한들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구속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 7~8).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직하

나그네 인생

게 최선을 다해 뛰어온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다.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뛰는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운 것이다. 머리에 내린 흰 서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의 면류관으로 알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기쁘게 생활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새로이 회복된 삼라만상의 터전 위에서의 참 자유와 평화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힘은 고난 속에서도 확신에 찬 승리의 개가(凱歌)를 부르게 하는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긍정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NO EXIT〉라는 희곡을 썼다. 그는 이 〈닫힌 문〉에서 “인간은 고통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히틀러 반대 운동에 나섰다가 사형대에 오르게 된 독일의 본 회퍼 목사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르트르는 닫힌 무덤을, 본 회퍼는 열려진 무덤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죽음이 인생의 종

착역이 아님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인간의 부정(否定, NO)을 긍정(肯定, YES)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짐을 보여 주셨다. 그 안에서 인간이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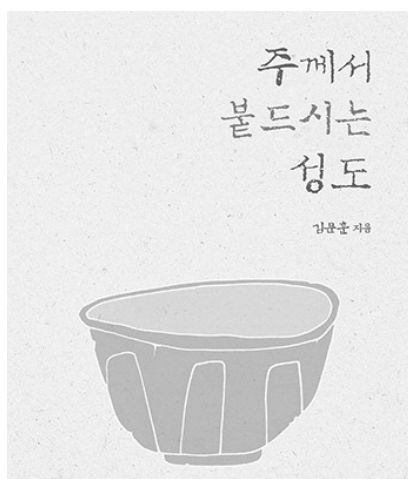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증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악의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할 것을 믿는다.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예’가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아멘’이다.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 15:16~17).

두란노 신간

‘성숙’의 열쇠는 ‘연단’



주님은 예쁘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지고 상한 그릇, 박살난 그릇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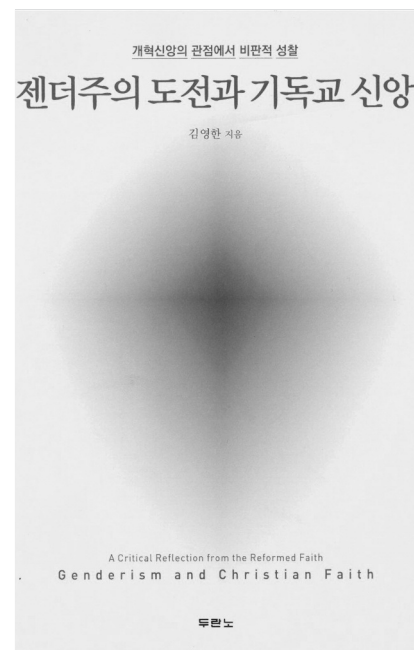
〈주께서 불드시는 성도〉
김문훈 저 | 두란노 | 11,000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대인관계, 성품,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울한 일상을 보내기도 한다. 바로 여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한 권이 나왔다. 김문훈 목사의 신간 〈주께서 불드시는 성도〉이다.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지만 성숙은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 성숙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드시는 성도의 삶은 연단과 시험이 가득 찬 인생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주께서 불드시는 성도〉를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창조질서 부정하는 ‘젠더주의’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김명한 저 | 두란노 | 10,000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질서와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젠더주의에 의한 ‘성해방 문화혁명’으로부터 비롯된 끔찍한 일이다. 성혁명은 인권운동의 탈을 쓰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의 가치와 전통적인 가정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의 저자 김명한 박사는 이 시점에서 젠더주의의 문제와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젠더주의자들은 음란한 동영상, 영화, 서적 등을 대중화시켜서 전통적인 사회관습을 무너뜨린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덕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성으로 구성되는 왜곡된 사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해체시키고 있다. 젠더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을 찍는다.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꼭 읽으면 좋겠다. 성경을 근거로 젠더주의의 사상적 왜곡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기고 쿼어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V)



김경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대학
원 설립원장)

예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 성소수자의 친구'였으나, 최근 생활에서 나오도록 저들을 치유하셨다. 쿼어 신학자들은 세리나 창기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음 같이 왜곡한다. "당시 죄인을 대표하는 것은 '세리와 창녀'였다. 이들은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비난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종교적으로 소외당했다. 이들과 가까이 하고, 사귀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로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가까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는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세리나 창녀도 그들이 소수자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야 한다.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 의하면 예수는 참으로 세리나 창녀의 친구가 되었다. 저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지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는 세리들의 착취에 협력하거나 창녀들의 부도덕하고 불륜적인 생활에 동조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는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받은 자들에게 다가가 저들의 대화상대가 되면서 이들의 상담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는 그의 거룩한 인간애와 신성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생활에서 나오도록 하였다.

예를 든다면 예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수 가성의 여인, 남편이 다녔으나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여인과 대화하면서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 생수를 가르치시고, 이 생수를 달라는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하신다. 예수와 거룩함에 압도당하면서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실토한다. 예수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새 삶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는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고 가르치신다.

예수는 동성애자의 인격을 사랑하시나 이들이 죄 된 성중독에서 돌아키도록 가르치신다. 동성애자도 참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성애자로 변화 받는다. 성경의 거룩한 힘이 동성애자들의 성중독을 변화시킨다. 오늘날에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새 삶으로 변화함을 받고 있다.



죄란 하나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지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다

쿼어 신학은 죄를 체제(體制)가 사회적으로 찍은 딱지인 낙인이라고 다음같이 왜곡한다. "예수는 당시 유대사회의 법체계에 의해 더러운 죄인이라고 낙인찍혔던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다. 법에 의해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다. 법에 의해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수성에 근거한 도덕적 우월감에 편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쿼어 신학의 죄에 대한 정의는 정치·신학적 정의로서 현존하는 독재정치 등에 저항하는 반체제적 행위를 변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죄에 대한 정의는 민중을 억압하는 1970년대 유신독재나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나 나치와 같은 파시즘 체제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그 구체적인 예가 초등학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다. 사회적 통념으로 교사가 초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규범을 어긴 것으로 본다. 사법당국은 사회적 양식에 따라서 여교사를 사회적 풍기를 문란한 죄를 지었다고 질책하였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결을 바른 것으로 본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원 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14일 자기가 담임인 초등학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를 징역 5년에 선고하면서 그녀의 행위를 "개인적 사회적 죄"라고 명명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강제 간접, 미성년자와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혼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귀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소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변소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여교사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동성애는 비록 두 사람이 서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중독의 행위에서 비롯되어 사회적으로 풍기(風紀)를 문란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수의 소외자 사랑은 '회개'와 '새 삶' 추구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죄인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는 사회적 죄를 행 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들이 사회적 소외자들과 죄인들을 배척함으로써 제도적 종교적 윤리가 지니는 상대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법과 윤리가 근거해야 할 토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했다. 예수는 사회적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으나 도덕적인 죄(십계명 범함)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예수는 사회적 소외자로서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외면성만을 보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적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예수는 체제에 의하여 낙인찍힌 자들을 그대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는 이들 세리나 창기나 불법자들을 풀어주시고 이들이 자신들의 죄(세금 수탈과 음란)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새 사람과 새 삶을 살라고 초대하였다.

쿼어 신학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 하나님 계명의 불순종이라는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적 개념에서 떠나서 민중신학이 시도한 것처럼 지배체제가 법체계에 의해서 찍은 사회적 낙인(烙印)으로 간주한다. 예수는 당시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다. 예수는 저들이 회개하고 옛 삶에서 돌아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도록 인도했다. 민중신학이 세리나 창기의 죄 된 행위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쿼어 신학도 동성애자들의 과거한 성행위의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적 가르침과 다르다. 쿼어 신학도 "법과 윤리가 근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사랑이다. 예수는 이렇게 가르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10).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는 죄인을 사랑했으나 죄는 미워하셨다

쿼어 신학자들은 예수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다음같이 피력한다.

"예수는 그들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대상화하거나 타자로 보지 않고, 그들의 심정과 처지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예수께서 오늘 살아 계신다면 예전에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고 존중했듯이 동성애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셨을 것이다."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 의하면 예수는 세리나 창녀를 저들의 입장에서 긍휼과 인자를 가

지시고 대했으나 저들의 죄 된 행위를 인정하지는 아니하셨다. 예수는 이들이 죄 된 행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저들을 선도하셨다. 예수는 이들이 소외당하고 정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 아흔 아홉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다(눅 15:7). 죄인(세리나 창녀 등)이 죄(수탈과 음란)을 회개하고 그 죄 된 행위를 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다. 예수는 동성애자들이 과거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예수는 동성애자들의 인격과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예수는 세리나 창기들이 죄 된 관습에서 돌아키기를 요구하셨듯이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과거한 행실에서 돌아키고 정상적인(이성애적)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

동성애 행위가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는 쿼어 신학자의 견해는 성소수자의 정상적 윤리에 어긋난다. 쿼어 신학자들은 예수가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편에서 서서 저들을 이해해주었을 것으로 왜곡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으로, 소외당하는 이들 자신의 심정과 눈으로 소외당하는 이들을 보고 사랑하고 가까이 했다. 게다가 오늘날의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적극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와 다수의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이고 행패이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예의이고 상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쿼어 신학자들은 이 문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이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쿼어 신학자들은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소수자(창녀, 세리, 반체제 인사, 동성애자, 다문화인 등)가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왜곡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다수자에 의하여 권익을 빼앗길 수는 있으나 그것의 시정(是正)은 법의 공정한 집행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된 것 자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편파적인 윤리관이 되어 버린다. 쿼어 신학자들의 친(親)성소수자 견해는 동성애 행위가 성소수자의 정상적 성관계에 어긋나며 사회적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공개적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쿼어 신학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현행으로 인해 죄 없이 죽은 아기와 젊은이들, 노부부의 인권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동성애자들과 이들 지지자들 및 쿼어 신학자들은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누구도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현행으로 인해 죄 없이 죽은 아기와 젊은이들, 노부부의 인권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AIDS) 역명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 역명감사는 에이즈 의심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이고, 에이즈 감염(感染)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받은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에이즈 역명감사 결과는 보건소도 누가 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에이즈 감염자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무책임적인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이러한 방침이 정의로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에이즈 역명 검사에 에이즈 현행으로 인해 비동성애자들을 에이즈 감염에 노출시키는 제도적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정의인가?

진리란 다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에 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에 의하면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소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에 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며 그의 가르침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살라"(요 14:6).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기도하셨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진정한 기독교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소수자들 자신의 심정과 처지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성중독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수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이르는 길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32).

동성애자들이 예수의 계명에 거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리(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알게 되고 진리가 저들을 동성애

에서 자유케 하리라고 가르치신다. 성경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로 대속 받지 못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계 21:22).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매년 쿼어 축제가 열리면서 동성애 물결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말세의 징조이다. 사도 유다의 경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사도 유다는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는 구절에서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의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었다고 교훈하고 있다. 사도 유다는 다시 마지막 때에 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종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경이 없는 자니라"(유 1:17-19).

사도 유다는 마지막 때에 자들이 가져야 할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동성애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삶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 1:20-21).

오늘날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이 요청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과 생각을 지키며, 그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중보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임을 증명

탈동성애자들의 양성선언은 동성애가 후천적인 성적 중독에서 오는 것을 증명한다. 쿼어 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성애가 자신들의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가 자연적이며 정상적이라고 변명하고자 한다.

오늘은 교사주일!

교사 위한 풍성한 행사 이어져



지난 3월 열린 차세대교사부흥집회에서 교사와 성도들이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늘(20일)은 교사주일이다. 차세대 교사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들이 이어진다. 서빙고, 양재, 부천, 남양주, 강동 온누리교회는 차세대 교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부천은 가족통합예배를 드리고, 수원에는 영화

관을 대관해서 차세대 교사들이 다 함께 영화 ‘원더’를 시청한다. 대전은 ‘교사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2부 예배를 차세대와 성인들이 함께 드리고, 파워웨이브 소속 학생들과 교사들이 특수를 한다. 서점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과 카네이션

도 전달한다. 인천은 커피쿠폰을 증정하고, 평택과 강동은 차세대 교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양지는 차세대 교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소정의 선물도 전달할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오산고 학생들에게 복음 흘러가기를”

전도사역본부, ‘111 Anniversary 드림콘서트’ 개최

전도사역본부와 오산고등학교 기독교문화가 지난 15일 오산 고등학교 강당에서 ‘111 Anniversary 드림콘서트(이하 드림콘서트)’를 개최했다. 드림콘서트는 학업에 지친 오산고등학교 재학생 500여 명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축제다. 이번 드림콘서트에서는 비보이 ‘익스프레

션’, 걸그룹 ‘베이비 부’, 플롯 연주자 송솔나무 등이 공연을 했고, 오산고등학교 역사와 교직원들의 응원 영상 상영도 이어졌다. 김승모 학생(3학년)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해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회복사역 금요특강 ‘회복을 봄’

회복사역본부가 개최하는 금요특강 ‘회복을 봄’이 지난 1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시작됐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목사), 조병민 목사(지구촌교회 상담센터장),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명예교수)가 강의한다. 금요특강은 6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에 진행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32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5월 27일 / 시간: 주일 오후 5시~7시(식사제공) /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 대상: 3월 11일~5월 10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장미정 최근수	전예진 한정민	노원 김성수 문승영	표정희 마포 김나희	김진우 전금중 조양현	성북 김윤정 문화태 채윤희	지영희 여의도 임화숙	강정석 김지희 장혜리	일산 김혜숙 양현숙 이종찬	박찬희 백근호 서효정 이선주 이우권 이현희 조우형	김하현 박태용 이지은 이혁진 이혜승 정진양 정혜진 조선희 진미현 함아름 황정민
강서 변준희 이해경	관악금천 김정숙 백상현 이미자 이지영 최문희	동대문종로 김경희 박종식 이민희 임선옥	성동광진 김진수 노시현 한용철	성동광진 김진수 노시현 한용철	신용산 김현준 박강기 유인순 이은주 윤상진 정효녀	영등포구로 고영숙 김은성 김춘화 이은주 정영숙 조순희 최성지	이수 배명희 백기령 양세진 유정호 차미경 최병준 최정국	중종로 이승은 이재형 진수경	OCC 이명신	
강촌 박혜경 전광구	광명 김형돈 방영우 이동궁	동작 김미선 민연정 변영주 이진희	서대문 한 신	서대문 한 신	양천 강민경 조윤정	용산	한강 김세연 김영석 박연정	S브릿지 김지훈 김근호 김라운		
고양은평 김윤중 박재진										

오창화 집사 대통령표창 수상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노력한 점 인정받아



오창화 집사

사회선교부 제이홈 소속 오창화 집사가 지난 12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린 ‘제 13회 입양의 날 행사’에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오창화 집사는 자녀 5명 중에서 2

명을 입양했다. 지난 2011년 쌍둥이 딸 현비와 현서를 입양했다. 오 집사는 “입양은 큰 부담도, 무거운 짐도 아니”라면서 “입양을 통해서 두 아이를 더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오창화 집사는 현재 대한사회복지회 입양가족 자조모임 ‘미쁨울’의 회장을 맡고 있다. 미쁨울에서는 입양가족 캠프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가족들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제이홈 팀장도 맡고 있다.

탈북민 모녀 간이식을 위한 기도와 지원 요청

사회선교부 하나원팀에서 후원하고 있는 탈북민 자매 A씨와 어머니 B씨의 간이식 수술비를 모금하고 있다.

지난해 하나원을 수료한 A자매는 건강 이상으로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검사결과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함께 탈북한 어머니 B씨가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다. 탈북 이후 한국행을 택한 A씨는 국내 재단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행을 택한 어머니 B씨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약 1,500만 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후원: 573-910008-39804(온누리교회 사회선교)
문의: 02-3215-3434

러브소나타 샷포로 2차 참가자 교육

러브소나타 샷포로 2차 참가자 교육이 5월 24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러브소나타 참가자 교육에서는 샷포로 현지 및 방문교회 설명, 봉사

안내,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과 일본어 찬양을 가르쳐주고, 중보기도도 한다.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의: 02-749-1149



샷포로 기 · 도 · 제 · 목

- 5월 21일(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 5월 22일(화) 많은 일본인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5월 23일(수) 모든 강사와 출연진에게 기쁨 부으심이 있기를
- 5월 24일(목) 봉사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소망을 붙드는 집회되도록
- 5월 25일(금) 스태프들이 지혜와 겸손으로 하나 되어 섬기도록
- 5월 26일(토) 날씨와 환경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 5월 27일(주일) 모든 장비 및 스태프, 봉사자들의 입국절차가 순조롭도록

‘키비 IBS School’ 참가자 모집

‘키비 IBS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4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1호에서 개강한다.

키비 IBS School은 이스라엘을 성

경적으로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6월 13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2204-7378

창조신앙스쿨 개강

창조신앙스쿨이 5월 27일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트리니티강의동 302호에서 개강한다.

강의는 5주 동안 매주 주일에 진행된다. 회비는 4만 원이며 참가신청은 5월 27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홈페이지

이지(<https://goo.gl/mwa3uH>), 양재 사랑을 앞에 설치된 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오늘(20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는 1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10-8906-4940

■ 이혼자행복학교를 섬기며



/ 김재영 팀장(이혼자행복학교)

이혼자행복학교(DRS: Divorce Recovery School)는 이혼자 또는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회복사역이다. 이혼자행복학교에서는 정기에배(예배와 지원그룹)와 이혼자행복학교(회복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혼했다는 사실을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내적으로만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의 아픔과 고통, 그 상실감은 이혼 당사자가 아니면 부모형제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혼을 하고 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혼자행복학교에서는 이혼자들이 정기에배와 이혼자행복학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아픔,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긴다. 싱글로서의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한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혼자를 위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온누리교회 이혼자행복학교가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또 다시 행복을 꿈꾸자!

정기에배는 이혼자행복학교(회복 세미나) 시간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에 드린다. 프로그램은 찬양, 설교, 지원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그룹은 3단계로 나뉘어 회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별 나눔 프로그램이다. 매년 2회씩 개최하는 이혼자행복학교(회복 세미나)는 2주차에 있는 1박2일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5주 동안 진행된다. 1주차에서는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선택했을까?’, 2주차에서는 ‘기쁨의 회복’, 3주차에서는 ‘자아상 회복’, 4주차에서는 힐링터치 프로그램 ‘못다 한 우리들의 이야기’, 5주차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10월에 진행되는 32기 이혼자행복학교부터는 5주차에 재혼에 대한 강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회복단계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재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회복 과정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1기 이혼자행복학교는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매주 토요일) 5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5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문의: 010-2539-5665

■ 미술인 선교회 아트비전



/ 최은정 팀장(아트비전)

하나님의 꿈을 그리는 공동체

안일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갖게 해 준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다. 아트비전은 나를 기독교 미술작가로 거듭나게 해준 귀한 공동체이다. 아트비전에 들어온 시점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부터 집 근처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 이듬해 교회 벽에 붙어 있는 ‘미술인들의 기도모임’이라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아트비전은 당시 몇 개 교회연합 전시 모임인 ‘KCAF(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참여를 위해 막 결성된 모임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미술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아트비전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아트비전은 교회 사역팀에도 속해 있지 않은 소규모 기도모임이었다. 그 기도의 씨앗이 아트비전의 초석이 되었고, 지금까지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미술인 선교회인 아트비전에 들어온 이후 미술에 대한 나의 사고가 변화됐다. 나름대로 화가로서 미술교육자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쌓기 위해 성실히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모든 책임을 크고 작은 개인적, 가정적 문제

로 돌리며 방황하는 시간을 겪었다. 그러던 중에 아트비전에 들어오면서 몇 년 동안 중단했던 미술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아트비전에서 활동하면서 작품에 임하는 나의 태도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 속에서, 때로는 예배와 찬양 중에, 또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다. 묵상들을 자연스럽게 나만의 화법으로 작품화 시키게 되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넘치는 은혜와 기쁨,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됐다.

아트비전은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제는 사회 선교부 소속 사역팀이 되었다. 교회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매주 뜨겁게 예배하고 있다. 작품 활동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살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각자의 ‘그림 큐티’ 작품 활동도 하고 있다. 교회 내·외부에서 전시도 하고, 사회선교부와 연계해서 예술사역도 해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꿈을 그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트비전에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진승관 성도(김포공동체)

선교를 더 알고, 행할 준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 추스르기도 급급했다. 그래서 나에게 선교라는 말은 피상적이고 먼 나라 이야기로 여겨졌다. 물론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모티브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선교라는 이름 앞에 지성과 감성이 뒤떨어져 있었고,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그 괴리를 풀어야만 했다. 그래서 와이미션을 신청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와이미션이 나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줬다.

첫째, 선교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다. 둘째,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의 시간마다 다른 강사(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들은 탁상에서 깨우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했던 삶을 전해 주었다. 셋째,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대교회가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가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죽

음을 각오하는 믿음이 없어졌다. 그리고 종교가 권력화, 도구화 되어서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나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환경이 좋으면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존의 생각을 버렸다. 나에게도 믿음의 순수성이 존재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섯째,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섯째,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준비하며 선교를 실행해야 한다. 일곱째, 선교에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양화진 묘역에 갔다. 이 나라가 옥토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마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희생한 선교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와이미션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들이 단지 메아리만 남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교를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실행할 것이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후원을 할 것이다. 선교를 더 알고 더 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 온누리 호스피스학교를 수료하며



/ 김용숙 목사(영화교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아주 오랜만에 소설을 읽었다. 이 소설은 캐나다 요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너심흠’과 그곳에서 지내는 환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너심흠은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말한다.

나의 경우에도 홀로 되신 친정어머니가 계신다. 지금은 너심흠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만 곧 누군가는 모셔야 한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모실 사람이 없다. 최근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보름 정도 머무셨다.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식사부터 시작해서 주무시는 것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모시고 사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 집, 너심흠〉을 읽으면서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의 남편 정우는 너심흠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고독한 일상을 보낸다. 너심흠이 아무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일지라도 환자들은 가족들을 향한 외로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다. 이 책을 읽으며 약 2

년 전 요양원으로 모신 예진이의 외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주말에 예진이의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할아버지만 덩그러니 누워계셨다. 머리는 길어서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손톱과 발톱이 길고, 치아는 없으셨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방치되어 있었다. 집사님들과 같이 가서 머리와 수염,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죽도 쭈어서 드시게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고마워요”라는 말을 꼭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의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보이게 돼서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 요양원에 가신 이후 할아버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쑥하고 보기 좋았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물거하셨다.

나는 너심흠에서 할아버지가 겪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 가족들과의 분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심흠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 사실 가족도, 훌륭한 제도도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깊은 외로움과 소외와 아픔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장로칼럼

갈렙선교학교에서

정광렬 장로
(영등포구로공동체)

지난달 30일 7주 동안 진행된 4기 ‘갈렙 선교학교’가 종강했다. 갈렙선교학교는 인생 후반전(은퇴 이후)을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자원을 바탕으로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배우는 과정이다. 이번 갈렙선교학교에 참석한 35명의 훈련생들은 선교사역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했다. 훈련생들이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와 함께 선교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적으로 동역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갈렙선교학교에 영등포구로공동체 지체 6명도 참여했다. 그들은 인도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와 함께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선교실천 계획을 세웠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인도의 역사, 사회, 경제, 문화 등 환경을 조사했다. 또 인도 기독교 선교 역사, 인도인들의 세계관, 기독교에 대한 인식 등 사역에 필요한 기초사항도 함께 알아봤다. 선교사의 가족사항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역하고 있는 팀의 사역목표와 전략까지 놓치지 않고 파악했다. 또 어린이사역을 돕기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조사했다. 전도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연주, 난타, 공작, 노래지도, 꽃꽂이, 영어 지도, 주일학교, 청소년 진로지도 등 선교사와 그곳의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갈렙선교학교를 통해서 제시해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조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교사와 동역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역 첫해인 내년 1월 선교지에 직접

방문해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역계획을 바탕으로 사역 2년 차에는 현지인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것이다. 현지 교회와도 연계해서 동역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역 3년 차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을 양육하고, 영어교실과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현지 학교와의 협력사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인도에서의 사역이 영등포구로공동체에 완전히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번 갈렙선교학교에 참여한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선교를 배우고 알면 떠나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피해 다니다가 이번엔 마지못해 참석하게 됐다. 하나님은 갈렙선교학교 통해서 나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갈렙선교학교를 통해 안개와 같고 풀 같은 인생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기하지 말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등 자신이 받은 은혜가 많았다.

한 분은 안산M센터에서 진행된 4번째 강의를 통해 자신의 인생후반전에는 M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싶다고 했다. 외국인 전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알제리에서 온 청년 2명에게 M센터를 소개한 경험도 나누었다. 다른 훈련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심어주는 간증이었다.

갈렙선교학교 4기를 수료한 모든 훈련생들이 단순히 선교 후원자가 아니라 선교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사를 돕는 자로서 동역할 것을 다짐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돕는 역할을 감당할 것처럼 더 많은 성도들이 갈렙선교학교에 참여해서 선교사와 선교를 돕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이미 이긴 전쟁

황보은선 권사
(성령수련회)

6월 16일이면 ‘성령수련회’가 70회를 맞이하게 된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사역이지만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다. 성령수련회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장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님의 어루만짐으로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성도들로 하여금 악에게 지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

나는 성령수련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알게 됐다. 때때로 성령수련회 접수부터 수련회 당일까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수련회가 끝날 때면 참석한 성도님들이 처음 올 때와 많이 달라진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얼굴로 집으로 돌아간다.

성령수련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아도 선한 것을 보지 못한다.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수련회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수련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 사단은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한다. 이 근심과 걱정이 관계 안에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열시킨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쟁은 영들의 전쟁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이미 이긴 전쟁이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자! 동시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자!

진심으로 성령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가?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기도하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성령수련회에 초대한다.

문의: 010-7120-5221

신앙에세이

김용민 목사
(W공동체)

몇 해 전 겨울, I국 북부의 한 빈민촌으로 청년들과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다. I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팀원들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아웃리치를 계획했다. 그 마을에는 약 1천여 명 정도의 빈민가정이 운집해서 살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은 고사하고, 전기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도 없는 곳이다. 그 열악한 환경에 할 말을 잃었다.

아웃리치 첫째 날에는 이튿날에 있을 전도집회를 알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예수님이 그려진 달력을 선물했다. 난생 처음 외국인을 본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그런데 전도집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했다. 달력을 나눠주고 센터로 돌아와 팀원 모두가 모여 기도회를 했다. 냉담한 반응 때문에 팀원들이 하루 종일 풀이 죽어있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 팀원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 가셨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이른 아침에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 한 곳에 천막을 세우고 발전차가 와서 음향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직 전도집회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전도집회가 시작됐다. 천막 안에는 약 500명 정도 되는 마을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앉아 있었다. 팀원들 모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다. 힘 있는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결신의 시간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교사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쪽부터 마치 파도물결처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본 우리들은 하나같이 감격의 눈물을 터트렸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움츠름치며 일어났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한다고 이름을 적어 낸 사람이 무려 190명이나 됐다. 그 마을에서 11가정이 가정예배를 시작했다. 그 마을에서 벌어진 복

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에 있는 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매일같이 아름다운 문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평생토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행 3:6).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되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저앉아 있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나는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자 소망 없는 빈민촌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 순간을 떠올린다. 올 여름에도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혼구원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첫 번째 열쇠는 열었지만 두 번째 열쇠는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고난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라면 결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약한 죽음으로 끝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서 “다시 산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놀려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옥문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옥의 문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문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뺄다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믿음생활은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 16:24).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셋째, 하늘나라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19절).

교회는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무엇을 매고 풀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해석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해석입니다. 교회 조직에 속하느냐 마느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권면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더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18-20).

예수님께서 교회의 매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신 후에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나라의 열쇠로 쓰임을 받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가 매고 푸는 것은 전도와 용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용서가 됩니다. 믿지 않았던 영혼이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 영혼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순예배에서 순식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역사에 참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살아 숨 쉬는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임찬웅 집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문화재 해설가)

강화도는 서울에서 가까운 섬이다. 지금이야 다리가 연결되어서 섬이라는 특징이 사라졌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 강화도는 한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폭풍이 몰아쳤던 곳이다.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왕실이 도읍을 옮기고 39년 동안 몽고에 항전했던 곳이다. 조선말 서양세력이 몰려올 때 한양을 방어하는 곳이기도 했다. 천주교 박해(병인박해)로 인해 발생한 병인양요(1866년) 때에는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문화재를 불태우고 약탈해갔다.

‘제너럴셔먼호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미군이 쳐들어온 신미양요(1871년) 때에는 조선군과 미군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곳이다. 일본은 운양호를 타고와

포격해서 강화도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위협에 굴복해서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이 몰려난 다음에는 적들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강화도 사람들에게 서양은 적대적인 존재였다.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강화도에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뿌리내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강화도 양사면 교산리 출신 이승환은 인천에서 교회를 다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모친이 노약해지자 존스 목사에게 세례를 요청하였다. 존스 목사가 강화도에 왔을 때 이 마을 양반이었던 김상임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막았다. 김상임은 존스 목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달이 밝게 뜬 밤 이승환은 어머니를 업고 갯벌을 걸어 존스 목사가 있는 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그의 어머니는 존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강화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

인천 지역(제물포) 교인 이명숙이 강화도 담당 전도인으로 파송되었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김상임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주와 노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보고 기독교야말로 민족을 구원할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김상임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지도자였던 김상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마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김상임과 함께 유학(儒學)을 공부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강화도 홍의마을의 박능일이 김상임의 변심을 따지러 왔다가 그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박능일은 홍의마을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토담집을 예배당 삼아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1년 만에 교인 수가 80명이 넘었다. 홍의교회 교인들은 신앙공동체로서 마을을 변화시켜 나갔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의미로 마을사람들 이름에 ‘일(-)’자 돌림을 쓰기로 했다. 박능일, 종순일 등 60여 명의 주민들이 이름을 바꿨다. 이 전통이

교동교회에도 전해졌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이름에 ‘신(信)자 돌림을 썼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 성경에서 빗탕감 받은 구절을 읽고는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 빚 문서를 불태우며 예수를 전했다. 홍의교회 사람들은 강화도 전역으로 흩어져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강화중앙교회, 교동교회, 주문교회, 매음교회 등 강화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다. 지금의 강화도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강화도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마음 밭이 옥토였다. 강화도에는 돌러볼 곳이 많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옥으로 지어진 강화성공회성당, 그 옆에 있는 철종 임금이 살았던 용흥궁, 고려왕이 살았던 고려 궁터도 있다. 강화도의 특산물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는 강화품물시장도 있다. 무엇보다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다. 강화도 교회들을 탐방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화도와 교회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두란노 직원 채용 공고

분야: 콘텐츠 서비스 UI 디자이너 모집

자격: 모바일 앱/웹 UI 디자인 경험자, 어

도비 XD 등 프로토타입 툴 경험자

분야: 두란노 IT 앱개발자 모집

자격: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이해가 있으

신 분,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개

선 경험이 있으신 분, Test Case를 도

출하고, 문제 해결 가능하신 분

지원: www.duranno.com 지원

온누리남성성교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문의: 배병곤 총무(010-7222-4071)

자세한 내용은 http://ommckr 참고

CGNTV 세라핌 합창단 모집

오디션: 매 주일 오후 2시(자유곡 1곡 악보

지참)

장소: Act29홀(선교관 1층)

대상: 초등 2학년 이상

문의: 010-4775-2403

온누리색소폰앙상블 단원 모집

대상: 온누리교회 교인, 색소폰 연주 경력

2년 이상(알토, 테너, 바리톤)

모임: 매주 월 오후 6시-8시

문의: 조금태 총무(010-5499-9941)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KNOCK 리플레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힐링 뮤직  재생할 때마다 되살아나는 은혜와 기쁨!

CCM 어쿠스틱 밴드 '빨간약'이 나누는 5월의 찬양을 소개합니다.

*'빨간약'은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담은 3인조 혼성그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그 이름,
감사함으로 부르는
<예수 예수>

지은이 김도현



다시보기



원곡의 리듬을 어쿠스틱 기타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재해석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지은이 Tommy Walker / C.C.C.역



다시보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은혜의 고백
<여호와는>

지은이 '빨간약' 5월 25일 업로드 됩니다.



KNOCK 리플레이 영상은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gntv.knock